

한국의 교육광풍: 과연 한, 후회, 학습효과의 산물인가?*

허 태 균[†] 남 궁 재 은 張 薇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현재 한국의 지나친 교육열을 반영하는 비정상적인 교육현상에 대한 피상적이고 거시적인 설명만이 존재하고, 반면에 자녀교육을 결정하는 학부모 개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규명이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널리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부모 자신의 교육에 대한 한, 후회, 학습효과’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양식과 자녀의 학습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고 548명의 학생과 그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학습효과는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와 합리적인 자녀교육의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한과 후회는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맹목적인 자녀교육의지와 관련되어 있었고 학업스트레스를 높이고 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단순히 교육열이 높고 낮음의 양적인 문제가 아닌, 그 심리적 근원에 따른 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교육열, 후회, 학습효과, 한, 양육태도

*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도와주신 류경화, 황민자, 김윤숙, 진혜련, 현혜정, 이정미, 신신자, 이영복, 오지연, 김혜영, 엄기남, 서경혜, 위선옥 선생님들과 자료입력을 도와준 이상욱, 김윤영, 이동하, 최진이, 김소연, 서에스더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2862, Email : tkhur@korea.ac.kr

교육열이 과거에는 한국 사회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들의 과열된 교육양태는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교육비 문제가 있다(한만중, 2003).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3년 9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의 사교육과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2.6%, 서울 및 광역시는 75%정도에 달했다. 연도별 사교육비도 1998년에 126억 원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136억 원 정도로 증가되었다. 연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지역이 478만원으로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최상근, 2003). 2007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1위를 차지했으면서도 교육의 국가 및 사회적 경쟁력이나 기여도는 가장 뒤떨어진 나라로 보고되어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윤미연, 2007). 또한 한국 국민들이 지난 4년 반 동안 외국유학이나 연수에 지출한 금액이 약 146억 달러(15조원)에 이른다는 통계자료도 최근에 보고되었다(최병서, 2007). 어린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그 어머니마저 동행하게 되고, 아버지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는 현상이나 학교 및 학원 분위기가 자녀들 공부에 더 적합하다며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주하는 현상 등이 생기면서 “기러기 아빠”, “강남 엄마”와 같은 신조어도 통용되기 시작했다(부산일보, 2007).

이러한 비정상적인 교육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설명은 아직까지 현상의 묘사나 실태조사 수준에서 정보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예, 현주, 2003; 김영화, 1992; 이해정, 2002). 한국 교육

열의 심각성이나 그 양태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 깔려 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과열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근원에 대해 논의해왔다. 예를 들어, 강창동(1996)은 교육열의 원인을 입신양명, 문벌주의 등에서 찾았고, 김영화와 이인화, 박현정(1993)은 한국의 유교문화 전통으로 교육열을 설명하였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교육현상을 한국의 전통문화나 역사적 배경 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비록 직관적이고 근원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우선 너무 거시적이며 해석적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더욱이 그러한 문화적 성향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발견(황상민, 김도환, 2004)과 달리 비정상적인 교육현상들은 현대에 들어 오히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모순이 존재한다(김희복, 1990). 현대사회에 비해 산업체계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는 그나마 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획득과 성공을 위해 더 확실한 통로(거의 유일한)인 방법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도 도대체 왜 유독 현대에 들어와서 교육열이 이토록 광풍수준으로 과열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다.

둘째, 그러한 거시적 관점은 실제로 자녀교육 내용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학부모 각각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는가? 또는 그 개인차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하나의 사회현상은 결국 수많은 개개인의 행동의 집합이다(이우권, 1999). 실제로 교육광풍이라는 사회현상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학부모들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거나 그 비이성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사회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접근에 못지않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과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접근도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따라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리한 투자도 서슴지 않는 한국 학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싶게끔, 혹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직접적인 심리내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서 학부모들 본인의 교육경험과 관련된 한, 후회, 학습효과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제안하고 검증했다.

교육에 대한 한

우리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교육열에 부모의 ‘한풀이’적인 측면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정원식, 1984). 즉,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부모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교육열의 형태로 발현된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독특한 감정 중 하나로 알려진 ‘한’은 통제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발생한다(최상진, 1991). 즉, 본인의 불행한 처지가 과거 혹은 미래의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의해 야기되었을 경우에, 그 불행의 감정은 다양한 한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한의 경험은 기회의 부재 혹은 박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환경이 너무 열악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그러한 시련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가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에 대한 한은 특히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다수의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던 시기를 보낸 세대에게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대중, 2007). 즉, 학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한이 강한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렇게 한이 많은 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억울함 또한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발하므로(Parducci, 1995; Ted Robert Gurr, 1970; 심영희, 1987) 이러한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보다 맹목적인 가능성이 있다.

교육에 대한 후회

과거 사건에 의해 유발된 부정적 정서라는 점에서 한과 후회는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 구성개념은 발생 원인이나 맥락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즉, 한이 통제감의 상실이나 기회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발생하는 반면 후회는 자기통제감 혹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기회를 지각했을 때 발생한다(허태균, 남궁재은, 2007; Roese & Summerville, 2005).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정하는 상향적 사후가정사고의 인지과정에 수반되는 대표적 정서이며, 경험 당사자가 과거에 달리 행동하거나 선택함으로써 해서 현재의 결과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인과적 관계가 지각되어 야지만 발생할 수 있다(허태균, 2002; Roese, 1994).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열의 경우에 학부모는 자신의 실패와 관련된 매우 선택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모 자신이 잡지 못했던 구

체적인 기회의 내용에 따라서 자녀에게 강조하는 교육의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후회를 경험한 부모들은 적어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한을 경험한 부모들에 비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절박성이나 맹목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교육을 통한 강화와 학습효과

사람들의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요인은 학습효과이다. 사람들은 강화(일반적으로 긍정적 결과)가 뒤따르는 행동을 더 빈번하게 하거나 선호하게 되고, 처벌을 가져오는 행동은 점점 피하게 된다(Bandura, 1969; Thorndike, 1898). 이렇듯 시간이 경과하면서 축적되는 강화와 처벌의 경험들이 모여 현재의 태도나 행동양식이 조성되는데 이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른다(Merriam & Caffarella, 1999).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다양한 사회계층에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람들의 수도 이전보다 증가하였다(이장용, 엄주정, 1998). 따라서 우리는 교육광풍현상, 혹은 교육열의 증가를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강화를 받은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서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상승을 경험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는 집단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를 양육태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한을 경험하는 학부모의 숫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잘 살려서 그 혜택을 본 학부모계층이 늘어났을 가능

성을 의미하므로,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역사적 변화와 함께 증가하는 교육열의 심리내적 원천을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학습효과를 경험한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맹목적이기 보다는 매우 강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성공적인 경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자녀교육행동을 보여 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

사회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현상을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개인행동들을 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개인의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들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심리기제를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광풍현상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심리기제가 바로 학부모 자신의 교육에 대한 한, 후회, 그리고 학습효과에 경험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심리기제에 대한 이해가 한국의 교육광풍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존의 통념이나 단정을 넘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각 심리기제들(한, 후회, 학습효과)에 따라 자녀교육양상, 특히 양육태도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반영하는 교육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습경험(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한, 후회, 학습효과가 서로 배타적인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인에게서 자녀교육양식이 하나의 심리기

제만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세 가지 심리기제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교육양식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의 과거 교육경험에 따라 세 심리기제의 상대적인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자녀교육양식의 차이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수도권, 그리고 타지방에 걸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표집 하여 학습스트레스, 학업적 효능감,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그 학부모 모두에게 본인의 교육에 대한 한, 후회, 학습효과 경험을 묻고,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자녀교육과 자녀의 대학진학에 관한 의식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방 법

설문참가자

본 연구는 서울경기 및 지방소재 초·중·고등학교 13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5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용, 어머니용, 아버지용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이 중 552가구의 자료가 수거되었다. 무성의하거나 거짓된 응답으로 의심이 되는 자료를 제거¹⁾한 이후 최종 분석대상이 된 학생은 총 548명으로 남자 220명, 여자 318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초등학교생은 259명, 중학생은 177명, 고등학생은 102명이었으며 10명은 성별 및 학년을 표기하지

1) 아버지 응답만 제거한 자료 5개, 어머니 응답만 제거한 자료 2개, 모든 응답을 제거한 자료 4개

않았다. 지역별 표본 구성은 서울 283명, 경기도 139명, 울산 59명, 전라북도 부안군 39명, 제주시 28명이었다. 최종적으로 이 학생들의 어머니 502명과 아버지 444명의 설문자료도 포함되었다.

설문절차

모든 설문지는 학교 교사를 통해 각 학생에게 배당되었다. 한 묶음의 설문지는 같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학생용, 어머니용, 아버지용, 즉 총 세 부로 구성되었다. 학생용 설문지는 학생이 학교에서 작성한 직후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였으며, 학부모용 설문지는 학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져 작성된 뒤 다시 학생을 통해 교사에게 전달되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설문에 응할 때 학교교사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도록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며, 특히 학부모용 설문지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공개되지 않도록 밀봉된 상태로 전달 및 수집되었다.

설문도구(학생용)

학생용 설문지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관련 스트레스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문항 9개는 현주(2003)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문항들은 학생이 시험이나 성적 때문에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측정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김아영과 박인영(1999)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신감 8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8문항으로 총 26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신감은 학생들이 학업 영역

에 국한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였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 판단, 자기반응과 같이 학업에 관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사이에서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측정하였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치를 7점 척도로 통일해서 사용하였으며,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은 설문지 맨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설문도구(학부모용)

학부모용 설문지 중에는 학부모의 심리기제(한, 후회, 학습효과)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각각 세 개씩 포함되었다. 자신의 교육경험과 관련된 한, 후회, 학습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각 심리기제의 개념적 정의에 맞게 새로운 문항들을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한을 측정하는 문항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한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 한으로 남는다.”와 같은 문항을 예로 들 수 있다. 후회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와 같은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학습효과 측정문항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본인이 경험한 사회경제적 이득을 자신의 교육성취에 귀인 시키는지를 묻는 질문 두 개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묻

는 질문 한 개로 구성되었다.

학부모용 설문지에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현주(2003)의 연구에 포함된 일부 문항을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부모의 의지를 묻는 문항 3개와 자녀의 대학 진학 시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을 묻는 문항 2개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속 변인으로 측정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실태와 의도를 질문하는 문항 4개는 현주(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중 주관식 문항 두 개를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또한 학부모 자신의 교육경험과 관련된 심리기제가 구체적인 자녀교육 행동의도 뿐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만든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황선명(1994)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도록 재구성한 척도를 본 연구의 아버지 양육태도 설문도구로 사용하였다. 어머니 양육태도와 아버지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였고 문항의 순서만 다르게 배치되었다. 양육태도는 두 개의 차원(애정-적대 및 자율-통제)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두 차원을 구성하는 네 개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양육태도, 거부적 양육태도, 자율적 양육태도, 그리고 통제적 양육태도는 각각 12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학부모용 설문지의 문항들 또한 7점 척도로 통일하였으며 기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은 설문지의 맨 뒤에 배치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연령군과 지역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변인들에 따른 주요 종속 측정치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핵심주제로 학부모의 심리기제인 한, 후회, 학습효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의 심리기제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양태와 학생들의 학습경험 변인들을 예측하는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연령, 지역, 성별에 따른 차이

학생연령을 초등학생(N=259)과 중고등학생(N=279)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행한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M=4.75)들은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M=4.54)들에 비해 학습효과를 더 많이 경험한 반면($F_{(1,486)}=4.105$, $p=.043$), 중고생 자녀의 어머니(M=5.00)들은 초등학생 자녀의 어머니(M=4.47)들에 비해 한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F_{(1,487)}=10.859$, $p=.001$). 이러한 패턴은 아버지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M=4.96)들이 중고생 자녀의 아버지들(M=4.55)보다 학습효과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F_{(1,429)}=13.372$, $p<.001$), 중고생 자녀의 아버지(M=4.55)들은 초등학생 자녀의 아버지(M=4.17)들보다 한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F_{(1,429)}=5.266$, $p=.022$).

또한 지역을 서울(N=210)과 경기 및 지방(N=229)으로 나누어 일원변량분석을 실행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아버지(M=4.60)들이 경기 및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M=4.17)들보다 한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F_{(1,437)}=7.1134$, $p=.008$). 또 경기 및 지방에 거주하는

아버지(M=4.92)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아버지(M=4.58)들에 비하여 학습효과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1,437)}=9.254$, $p=.002$).

학생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보았을 때 남학생(M=2.39)이 여학생(M=1.76)에 비해 학원 및 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많았다($F_{(1,513)}=18.818$, $p<.001$). 또 남학생(M=16.15)이 여학생(M=11.21)보다 학원 및 과외에서 일주일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F_{(1,506)}=23.009$, $p<.001$), 남학생(M=4.28)이 여학생(M=3.64)보다 본인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지각하였다($F_{(1,492)}=19.579$, $p<.001$).

한, 후회, 학습효과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기제가 양육태도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학습효과를 많이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그 다음으로는 후회를 많이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보였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습효과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그리고 한을 경험했을수록 애정적 양육태도 점수가 높았다. 거부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경우에서 후회만이 이를 예측하였다. 즉, 후회를 많이 하는 부모일수록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율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통제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경우 후회와 학습효과가 이를 강하게 예측하였고 한은 이보다 약하지만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습효과와 후회의 순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를 예측하였고 한은 유의미한 예측변인이 아니었다.

표 1. 양육태도를 예측하는 부모의 심리기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법사용)

종속 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t	$R^2(\Delta R^2)$	F
애 정	한	-.005	.024	-.010	-.202		
	모	후회	.060	.030	.096	1.993*	.142(.137)
	학습효과	.272	.033	.349	8.196***		27.108
	한	.075	.030	.137	2.521*		
	부	후회	-.027	.038	-.039	-.712	.142(.136)
	학습효과	.300	.037	.373	8.190***		23.885
거부	한	.040	.023	.086	1.722		
	모	후회	.098	.029	.170	3.346**	.052(.046)
	학습효과	.018	.032	.025	.568		8.961
	한	.004	.030	.007	.126		
	부	후회	.080	.038	.122	2.090*	.016(.009)
	학습효과	-.016	.037	-.021	-.429		2.317
자율	한	.021	.021	.048	.985		
	모	후회	-.008	.027	-.015	-.299	.086(.080)
	학습효과	.198	.030	.293	6.657***		15.408
	한	.031	.024	.074	1.294		
	부	후회	.003	.031	.006	.104	.050(.043)
	학습효과	.132	.029	.214	4.478***		7.570
통제	한	.050	.023	.103	2.165*		
	모	후회	.147	.030	.239	4.960***	.146(.141)
	학습효과	.152	.033	.198	4.662***		27.922
	한	.034	.026	.071	1.316		
	부	후회	.100	.033	.164	3.014**	.145(.139)
	학습효과	.212	.032	.303	6.661***		24.468

*p<.05. **p<.01. ***p<.001.

한, 후회, 학습효과가 자녀교육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기제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나 행동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학습효과가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표 2.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부모의 심리기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법사용)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t	$R^2(\Delta R^2)$	F
자녀 대학 진학 의지	모	한	.001	.043	.001	.027	.064(.059)	11.229
		후회	.075	.054	.069	1.371		
		학습효과	.312	.060	.232	5.213		
자녀 재정 지원 수준	부	한	.088	.052	.100	1.690	.022(.015)	3.126
		후회	-.044	.067	-.039	-.622		
		학습효과	.170	.063	.0133	2.707**		
학과 선택 기준 - 유망	모	한	.092	.035	.122	2.603*	.159(.153)	30.829
		후회	.152	.045	.162	3.400**		
		학습효과	.337	.049	.288	6.820***		
학과 선택 기준 - 유망	부	한	.070	.038	.102	1.849	.115(.109)	18.700
		후회	.169	.049	.192	3.465**		
		학습효과	.203	.047	.201	4.341***		
학과 선택 기준 - 적성	모	한	.118	.048	.124	2.469*	.040(.034)	6.832
		후회	.129	.061	.109	2.124*		
		학습효과	-.064	.067	-.043	-.950		
학과 선택 기준 - 적성	부	한	.120	.057	.120	2.084*	.035(.029)	5.270
		후회	.115	.074	.091	1.566		
		학습효과	.037	.071	.026	.530		
학과 선택 기준 - 적성	모	한	.010	.033	.015	.297	.029(0.23)	4.882
		후회	.098	.042	.121	2.346*		
		학습효과	.096	.046	.094	2.069*		
학과 선택 기준 - 적성	부	한	-.001	.039	-.001	-.016	.020(.013)	2.910
		후회	.092	.049	.108	1.853		
		학습효과	.077	.047	.079	1.628		

*p<.05. **p<.01. ***p<.001.

나타났다. 자녀의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점수는 학습효과, 후회, 한을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그리고 학습효과와 후회를 경험한 아버지일수록 높았다. 한과 후회를 경험하는 어머

니, 그리고 한을 경험하는 아버지일수록 자녀의 대학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장래 사회경제적 유망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에 학습효과와 후회를 경험한 어머니일수록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자녀의 대학 학과를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후회, 학습효과가 자녀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심리기제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적 효능감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한을 경험한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학업적 효능감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후회를 경험한 아버지의 자녀일수록 학업적 효능감 점수가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평가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교육관련 현상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자녀교육을 결정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적 기제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녀교육양태를 결정하는 학부모들의 심리기제로써 회자되어온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 후회, 학습효과의 경험이 교육열행동 및 자녀들의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교육관련 연구들에서 배제되어 온 학부모의 심리내적기제의 역할을 규명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산발적으로 제안되었지만 학문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던 사회적 통념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학생들의 연령, 성별, 지역에 따른 학부모들

표 3. 자녀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및 효능감을 예측하는 부모의 심리기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입력방법사용)

종속변인	예측변인	B	SE B	β	t	$R^2(\Delta R^2)$	F
학업 스트레스	한	.041	.032	.065	1.267	.006(.000)	1.024
	모 후회	-.013	.041	-.017	-.330		
	학습효과	.055	.045	.056	1.216		
	한	.082	.038	.126	2.179*	.019(.012)	2.822
	부 후회	-.019	.048	-.023	-.399		
	학습효과	.086	.046	.091	1.867		
학업적 효능감	한	-.052	.028	-.095	-.1871	.014(.008)	2.350
	모 후회	.008	.035	.012	.237		
	학습효과	.064	.039	.075	1.642		
	한	-.113	.033	-.199	-3.467**	.037(.031)	5.625
	부 후회	.087	.042	.119	2.071*		
	학습효과	.061	.040	.073	1.520		

* $p < .05$. ** $p < .01$. *** $p < .001$.

의 심리적 기제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한국 근현대 사회의 변화와 일맥상통하였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가 교육에 대한 한을 더 많이 경험한 반면 학습효과는 더 낮았다.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보다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평균연령이 더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기회는 높은 연령층에게 더 제한적이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는 동시에 과거 한국사회에서의 교육이 ‘한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이철용, 조인직, 홍수용, 2005; 박팔령, 윤두현 2006), 이제는 이미 교육의 혜택을 입거나 관찰한 학부모들의 학습효과로 더 잘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 따른 심리기제의 차이는 아버지에게서만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 비해 한이 높고, 학습효과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와 같은 자신의 교육수준이 서울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고학력 취득자가 많은 곳보다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더 가치 있게 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니는 학원의 개수, 학원에서 보내는 절대적 시간, 그리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개인의 지각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사회의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또는 재정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 아들을 통한 가계세습의 전통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황상민, 김도환, 2005)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남성의 사회적 성취가 여성의 그것보

다 더 기대되고 중시되는 진화론적 보편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학부모 자신의 교육경험에 의해 형성된 심리기제인 한, 후회, 그리고 학습효과가 학부모의 전반적인 양육태도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습효과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후회 또는 한과 부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경우에서 학습효과는 애정적 양육태도 및 자율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교육에 대한 후회를 경험하는 어머니 및 아버지들은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교육효과 및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이원영, 1983; 황선영, 1994). 이는 교육이 자녀의 긍정적인 미래를 이끌어 줄 것이라는 학부모의 경험에 근거한 신념은 자녀를 상대적으로 허용적, 수용적, 민주적으로 대하게 하지만, 자신의 실패한 교육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자녀를 의존적, 과보호적, 통제적으로 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학습효과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한이나 후회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상대적으로 더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부모의 자녀대학진학 의지에도 반복되었다. 즉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를 강하게 경험한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과를 선택할 때 자녀의 적성을 더 중요시하지만, 한과 후회를 높게 경험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졸업 후 사회적 성공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교육의 의사결

정 과정에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모 자신의 한이나 후회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교육보다는 맹목적인 교육이 될 위험이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과 후회와 같은 부정적 심리기제에 근거한 자녀교육이 결국 학생들의 학습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자녀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 효능감에 대한 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에는 주의와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우선, 긍정적 학습효과를 경험한 학부모집단은 교육을 통해 강화(실질적 이익)를 얻은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후회나 한을 경험한 학부모집단의 그것보다 낮을 수 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물질적 조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부모의 양육태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느끼는 학업 스트레스나 학업적 효능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한과 후회, 학습효과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심리기제가 교육열의 원인인지 아니면 단지 풍요로운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는 것인지 그 상대적 설명력을 밝히는 과정이 추가된다면 변인들 간에 보다 명확한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부모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가 한이나 후회의 경험을 보고하는데 미쳤을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 현재 상태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Bartlett, 1932; Robinson & Clore 2002). 예를 들어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어도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부모는 그렇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 한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할 수 있다. 물질적 외생적 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부모의 심리기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적 심리경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자기보고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기제를 그들의 과거조건, 현재 상태, 과거 교육 기회의 부재 등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유형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자기보고식 설문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더 다양한 종류의 학부모 심리기제가 분석에 포함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룬 긍정적 학습효과 외에도 부정적 학습효과(학습에는 성공하였지만, 그 학습이 강화를 가져다주지 않은 경우)를 경험한 부모가 보이는 교육열의 양상도 관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불안이나 자녀와의 동일시와 같은 변인을 추가한다면 이들의 매개역할도 점검할 수 있다. 한이나 후회를 경험한 부모라도 자녀와의 동일시가 약하다면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욕구를 자식을 통해 해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교육열 현상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들(현주, 2003; 김영화, 1992; 이혜정, 2002)이 등한시해왔던 심리적 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도했다는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향한 교육행동과 자녀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었지만(이원영, 1983; 황선영, 1994), 본 연구는 이러한 양육태도의 근원을 밝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

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바탕을 둔 심리적 기제에 의한 맹목적인 교육열이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현재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광풍이 단순히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낮음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심리적인 근원의 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발견은 앞으로 한국사회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교육열의 심리적 근원을 고려대상에 포함하는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사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정책의 목적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김대중 (2007). '사람 만드는 교육'이 없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4/22/2007042200391.html에서 2007, 04, 22 인출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學研究*, 39(1), 95-123.
- 김영화 (1992). 학부모의 교육열. *교육學研究*, 30(4), 173-197.
- 김영화, 이인호, 박현정 (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창동 (1996). 한국 교육열의 사회학 특성에 관한 연구. *教育問題研究*, 8, 209-227.
- 김희복 (1990). 한국인의 교육열 탐색: 부산지역 고등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慶星大學校 論文集*, 11(3), 289-331.
- 박팔령, 윤두현 (2006). 앞으로 더 공부해 못 배운 恨풀터. 문화일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62310§ion_id=102&menu_id=102에서 2006, 08, 28 인출
- 부산일보 (2007). [한국에 살며] 기러기 아빠와 강남 엄마. 부산일보.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7/0823/040020070823.1026103025.html>에서 2007, 08, 23 10:30 입력
- 심영희 (1987). 상대적 박탈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 소년원생을 중심으로. *刑事政策*, 2, 69-115.
- 윤미연 (2007). 한국 사교육비 비중, 세계 최고 수준. http://www.datanews.co.kr/news/news_view.php?mode=con_1&seq_no=25777에서 2007, 04, 03 인출
- 이우권 (1993). 연결망 분석의 행정학적 함의. *全北行政學報*, 13(1), 179-203.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과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장용, 엄주정 (1998).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관한 고찰. *人文社會科學研究*, 2, 123-141.
- 이철용, 조인직, 홍수용 (2005). 사교육비 지출도 기업투자처럼. 동아일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278666§ion_id=101&menu_id=101에서 2005, 01, 02 인출
- 이혜정 (2002).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취학 전 교육. *教育研究論叢*, 23(1), 49-75.
- 정원식 (1984). 韓國社會 한 世代: 교육열. *社會科學과政策研究*, 6(2), 81-91.
- 최병서 (2007). 외교 존폐 논란과 사교육 양극

- 화.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929030003>에서 2007, 09, 29 인출
- 최상근 (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최상진 (1991). '한'의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시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pp. 339-350. 10월. 서울: 중앙대학교.
- 한만중 (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함께하는 시민모임 교육 세미나 발제 논문집, pp.1.
- 허태균 (2001). 사후가정사고의 심리적 기능과 응용적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8(2), 171-190.
- 현주, 이재분, 이해용 (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선영 (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 사고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ura, A. (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rtlett, F. C. (1932).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rr, T. R. (1970). *Why ma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r, T., & Namkoong, J. (2007, July) What do Koreans regret most and why?: A cultural integration of opportunity and regret.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Kota Kinabalu, Malaysia.
- Merriam, S. B., & Caffarella, R. S. (1999).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Bass.
- Parducci, A. (1995). *Happiness, pleasure, and judgment: The contextual theory and its applications*. Mahwah, NJ: Erlbaum.
- Robinson, M. D., & Clore, G. L. (2002). Belief and feeling: Evidence for an accessibility model of emotional self-report. *Psychological Bulletin*, 128, 934-960.
- Roese, N. J. (1994). The functional basis of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05-818.
- Roese, N. J., & Summerville, A. (2005). What we regret most... and w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9), 1273-1285.
- Schaef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Thorndike, E. L. (1898). Animal intelligence: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associative processes in animals. *Psychological Review Monograph Supplement*, 2(4), 1-109.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16

최종 원고 접수일 : 2008. 01. 18

Koreans' Education Panic: A product of han, regret, or learning effect?

Taekyun Hur

Jae Eun Namkoong

Wei Zhang

Korea University

The 'education panic' is one of the most phenomenal social issue in the current Korean society. The explanations of it until now, however, are rather superficial in a way that they only describe apparent facts and its seriousness, rendering further examination of the psychological motivation of parents who are the protagonist of education panic necessary. With 548 elementary,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present study has investigated the impact of parents' past experience of 'han', regret, and learning effect regarding education on their parenting style as well as on their children's academic experience. The result revealed that parents' learning effect was related with more affective/autonomous parenting style and reasonable expectation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al career. On the contrary, parents' 'han' and regret indicated relationship with hostile and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nd also with blind intention toward their children's educational career. The negative emotions also seemed to increase their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lower academic self-efficacy.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extraordinary education panic in Korea is more than a simple quantitative matter of intensity. The psychological basis and motivation of the people included, a much more quantitative inform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Key words : education panic, learning effect, regret, han, anxiety

부 록

학부모의 심리기제(교육에 대한 한, 후회, 학습효과) 측정문항 및 내적합치도

한
1.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이 계속 한으로 남는다.
2. 나는 교육을 더 받고 싶었지만 집안의 현실적인 사정상 그럴 수 없었다.
3.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러움을 자식이 안 느꼈으면 좋겠다.
모집단 Cronbach's α = .796
부집단 Cronbach's α = .779
후회
1. 나는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2.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실수를 자식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모집단 Cronbach's α = .666
부집단 Cronbach's α = .645
학습효과
1. 나는 교육의 덕을 많이 보아왔다.
2.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교육은 내 자식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다.
모집단 Cronbach's α = .447
부집단 Cronbach's α = .572